

# 영화계 '을들의 싸움' 부추긴 '갑의 횡포'

### '개홍방' 예술영화전용관 상영 논란 거대 배급사 상영관 독과점이 발단

“을들의 싸움? 본질은 '갑의 횡포로 빚어  
진 다양성문화의 존재 위기!”

영화 '조류인간'(제작 루이스소니도스)과 김  
혜자 주연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개홍  
방, 감독 김성호·제작 삼거리픽처스)이 예술영  
화전용관 상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관객과 평단의 지지를 얻은 두 영화와 관  
련한 논란은 상영관 확보 경쟁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대기업 멀티플렉스 극장체인이 주  
도하는 상영 환경의 악화라는 지적이다.

'조류인간'의 신연식 감독은 '개홍방'이  
2월12일 재개봉하는 과정에서 15개 예술영화  
전용관을 확보했다면서 “이는 다양성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감독은 3일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예술영화  
전용관은 독립영화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  
는 장치”라며 “상업영화와 예술영화전용관  
에서 재개봉하는 방식에 대한 적합한 논의와 공  
론화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멀티플렉스 극장체인을 둔 대기업 투자배급사들의 상영관 독과점 논란 속에 영화 '조류인간'과 '개홍방'(왼쪽부터)이 예술영화전용관 확보와 관련한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제공 루이스소니도스·삼거리픽처스

앞서 '개홍방'은 지난해 12월31일 약 200개  
관에서 개봉했다. 관객의 호평이 이어졌지만  
조조와 심야시간에 배치되면서 이른바 '퐁당  
퐁당'(교차상영) 상영 논란을 불렀다. 상영관  
확대 요청 속에 제작사는 재개봉을 추진했고  
결국 일부 예술영화전용관을 확보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예술영화전  
용관은 전국 49개관. 한 해 100여편이 넘는 독

립영화 등을 상영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  
는 지적이 많다. 특히 최근 제작비 10~20억  
원 규모의 상업영화가 늘면서 독립영화의 상  
영 기회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높다.

영화계에서는 이번 논란의 원인은 CGV,  
롯데시네마 등 배급사를 보유한 대기업 계열  
멀티플렉스 극장의 독과점 상황이 낳은 또 다  
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투자와 배급, 상영이 한 번에 이뤄지는 수직  
계열화 구조에서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독립  
영화는 관객에게 공개될 기회조차 얻기 어려  
운 현실에서 한정된 상영관을 나눌 수밖에 없  
는 영화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코피었다. CJ CGV가 '아트하우스'라는 이름  
으로 전국 17개 예술영화전용관을 마련해 독  
립영화 등 다양성 영화 배급에 본격 뛰어들기  
도 했지만 이는 전체 예술영화전용관의 약  
35% 비중을 차지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대기업 극장체인의 '선택'을 받지 못한 영  
화의 차별 사례가 늘자 영화진흥위원회의 지  
난해 6월14일 예술영화인정심사 제척까지 수  
정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한 관계자는 “예술  
영화전용관 지원액 기준은 개봉시 200개관  
미만이었지만 여기에 840회차 상영 미만 조  
항을 더했다”면서 “극장의 교차상영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  
홍방'은 2월 초 예술영화 인정 심사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혜리 기자 goli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 연예뉴스 스테이션

#### 이태임, 불화·욕설 논란...드라마·예능 잇따라 하락

드라마 녹화 불참과 예능프로그램 하락로  
논란을 빚고 있는 연기자 이태임(사진)이  
구설에 올랐다. 하자 소식이 알려진 MBC  
'떠돌이집'과 '과외하기' 출연자와 관계자는  
3일 “최근 이태임이 현장에 지각하는 등 상  
황이 좋지 않았다. 촬영에 들어가서도 한 출연자에게 욕  
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밝혔다. 출연 중이던 SBS 주말드  
라마 '내 마음 반짝반짝' 촬영장에서도 이태임은 출연 분  
량과 연출 등에 불만을 품고 연출자 김유진 PD와 다툰 것  
으로 알려졌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나이 또래가 비슷  
한 여성 PD에게 ‘여배우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다. 스태프와 다른 연기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  
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작진은 “건강상의 이유”로 무  
단으로 촬영을 거부한 이태임을 예정된 2~3회 분량만 촬  
영하고 하차시키기로 했다.

#### 봉태규, 2세 연하 사진작가 하시시박과 10월 결혼

연기자 봉태규(34)가 2세 연하 사진작가 하시시박(본명  
박원지)과 결혼한다. 3일 봉태규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10월 결혼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미정”이라  
며 “최근 설날을 맞아 양가 부모가 만나 상견례를 마쳤다”  
고 말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봉태규는 지난해 지인 모  
임에서 처음 인연을 맺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앞서 하  
시시박은 2개월 전 SNS에 “결혼한다”를 영문으로 남기  
며 커플링을 한 남녀의 손을 짚는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끈 바 있다.

#### 송승헌·윤아, 남세자의 날 기념식서 대통령 표창

연기자 송승헌(왼쪽 사진)과 그  
룹 소녀시대 윤아(김윤아·오른  
쪽 사진)가 모범 남세자로 선정  
됐다. 송승헌과 윤아는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  
션센터에서 열린 제49회 남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월 말 포상 후보자에 올랐던 두 사람은 남  
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봉사에도 앞장선 공로로  
영예를 안았다. 두 사람은 국제청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 JYJ 김준수, 3번째 솔로앨범 '플라워' 차트 순항

그룹 JYJ 김준수의 세 번째 솔로앨범 '플라워'가 순항 중  
이다. 3일 1년 8개월 만에 발표된 3집 '플라워'의 타이틀  
곡 '꽃'이 이날 공개 직후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 10위권  
에 올랐다. 타이틀곡을 비롯한 '그 말 참 미다', '나비' 등  
수록곡도 순위권에 진입했다. 또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실  
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는 등 관심이 뜨겁다. 3일 일본  
오사카 공연을 마친 뒤 7일과 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  
서 국내 팬들과 만난다. 이후 중국 상하이·태극·일본 후  
쿠오카와 나고야 등 아시아투어에 나선다.

#### 전태관, 암 투병 불구 봄여름가을겨울 콘서트 참여

밴드 봄여름가을겨울의 전태관이 암 투병 중에도 무대에  
오른다. 전태관은 13일과 14일 서울 대치동 KT&G 상상  
아트홀에서 열리는 콘서트 '반짝반짝 청춘의 라디오를 켜  
고'에서 드럼 대신 무대에 설치된 DJ 박스에서 노래와 사  
연을 소개한다. 3일 '봄여름가을겨울' 측은 “전태관이  
무대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뮤지션과 관객에게 행복과 긍  
정의 기운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2년  
신장암 수술을 받고 병마를 이겨낸 전태관은 지난해 12월  
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통원치료 중이다.

편집 | 유진한 기자 haja1787@donga.com·고정일 기자 ico@donga.com

### 신해철 사망 관련 일지

2014년 .....

- 10월17일 ▶ 북동 호스퍼머 서울 A병원 내원해  
장협착 수술
- 10월19~21일 ▶ 지속적인 가슴 복부 통증으로  
입·퇴원 반복
- 10월22일 ▶ A병원 입원 중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이후 서울 아산병원 이송.  
개복 장절제·유착 박리술 등 시행.  
의식불명, 개복 상태로 수술 종료
- 10월27일 ▶ 자살수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
- 10월31일 ▶ 발인, 유족 측 사망 원인 확인 위해  
부검 결정, A병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고소
- 11월1일 ▶ 서울 송파구 A병원 입수수색.  
의무기록 확보
- 11월3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장 천공으로 인한  
심낭염과 복막염 합병증 사망  
1차 소견 발표. 이물질 등 이유로  
의인성 손상 가능성 제기
- 11월9일 ▶ 경찰, A병원 강도 원장 소환 조사
- 12월9일 ▶ 경찰, 대한의사협회·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의료과실 여부 감정 의뢰
- 12월30일 ▶ 대한의사협회.  
'의료과실 아니다' 결과 발표

2015년 .....

- 1월12일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경찰에  
의료과실 관련 감정 결과 전달
- 3월3일 ▶ 경찰, 의료과실 결론.  
A병원 강도 원장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 “신해철 사망은 명백한 의료과실”

### 경찰, A병원 측 과실 결론

“장협착 수술 후 합병증 방지” 결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유족 측 “원장 상대 손해소송 제기”

경찰이 고 신해철 사망 사고와 관련해  
A병원 측의 과실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  
고 해당 병원 강도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  
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해 10월27일 신해철이 세상을 떠난 지 4개  
월 만이다. 이번 경찰 결론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  
백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근거에 대해서는 “신해철이 A병원에서 장  
협착 수술 후 합병증을 일으켰지만 병원  
측은 고열과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을 회복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증상으로 치부  
해 고인을 살릴 기회를 두 번이나 놓쳤다”  
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장협착 수  
술을 집도한 A병원 강 원장은 사건 이후

졸근 자신의 실수가 아님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유족 측은 고인의 동의 없이 병원  
측이 위축소술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고  
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심장 천공이  
발생했다며 강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  
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장례 도중 전격적으로 부검  
을 결정할 정도로 병원을 상대로 끈질기게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유족 고소 직후  
병원 측에 압수수색을 발하는 등 의무기  
록을 확보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  
해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밝히며  
“이물질 등 이유로 의인성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냈다. 이처럼 강 원장의  
주장과 첨예하게 엇갈린 소견에 경찰은 대  
한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  
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지만 대  
한의사협회는 “의료과실로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  
만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  
원의 결과를 전달받고 그동안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과실로 판단했다.

하지만 강 원장은 경찰 발표에 대해 “일  
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인정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 변호인 서상수 변호사(법무법인  
서로)는 이날 “이달 안에 강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  
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신실한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  
련 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 강예원·엠버·박하선·이다희 '진짜사나이' 후광효과

강예원, 주연 영화 홍보 효과  
엠버, 예능프로 섭외 1순위로  
박하선·이다희도 이미지 변신

결그룹 에프엑스의 엠버, 연기자 강예원·  
박하선·이다희가 '진짜사나이'의 후광효과  
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들은 MBC '일밤-진짜사나이' 여군특집  
2'에 출연해 반전의 매력으로 시청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방송 전에는 지난해 8월 '여군  
특집1'의 화제성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보란 듯 저마다 특색 있는  
캐릭터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

그 성과는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강예원  
은 지난해 촬영을 마친 주연 영화 '연애의 맛'  
이 최근 개봉일을 확정하는 '행운'을 얻었다.  
제작사의 내부 사정으로 한 차례 개봉이 미뤄  
진 영화는 4월16일 개봉한다. 특히 강예원이  
'진짜사나이'를 통해 '아로미'라는 별칭을 얻  
으며 대중의 호감도를 높여 영화 홍보에도 시  
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엠버 역시 '재발견'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최대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강철 체력'으로  
눈길을 모은 그는 영화 '지.아이.조'의 제목을  
빚낸 '지아이 엠버'로 불린다. 우리말이 서투  
르긴 해도 점차 군대문화에 적응해가는 모습  
이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솔직하고  
영동한 모습으로 예능프로그램 섭외 1순위로



MBC '진짜사나이'에 출연하는 강예원·엠버·박하선·  
이다희(왼쪽부터)의 여군 변신에 대중의 호기심이 인  
기로 변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꼽으며 MBC '라디오스타' '나혼자 산다', K  
BS 2TV '출발 드림팀2' 출연을 앞두고 있다.  
또 최근 솔로 가수로 첫 발을 내디디며 음악프  
로그램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에게 '군복이 잘 어울리는 여스타'  
에 꼽힌 이다희와 박하선은 본인인 연기자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하반기 드  
라마 2~3편의 주연으로 출연 설비를 받고 있  
다. 특히 그동안 드라마에서 우월한 캐릭터를  
주로 선보인 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쾌활한 모습으로 부각되고 있  
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맛보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 엑소, 무비 촬영 마쳤다...컴백 초입기

이달 말 정규 2집 발표 앞서  
7일 단독콘서트서 신곡 공개

'최강그룹' 엑소(사진)가 컴백 초입기  
에 들어갔다.

3일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엑소는 1일  
까지 사흘에 걸쳐 새 앨범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끝냈다. 또 7일부터  
펼치는 두 번째 단독콘서트에서 신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곡 활동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말에 정규 2집을  
낼 것으로 보인다.

뮤직비디오가 대체로 음반 작업의 가  
장 마지막 순서임을 감안하면 엑소의 컴  
백 작업은 마무리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대중 앞에 내놓을 음반의 대표곡이 정해  
진 것이고, 또 무대 의상과 안무가 확정  
돼야 뮤직비디오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엑소는 당초 1월 두 번째 정규 앨  
범으로 컴백을 예정했다 작업이 늦어지  
면서 3월로 한 차례 그 시기를 늦춘 바  
있다.

엑소는 7~8일, 13~15일 총 5일간 서  
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여는 '엑소 플래닛 #2-디 엑솔루션 인 서  
울'에서 2집의 일부 수록곡 무대도 선보  
일 예정이다. 또 28일 베트남 하노이 국  
립경기장에서 열리는 KBS 2TV '뮤직뱅크  
인 하노이' 녹화에도 참여하는 등 2집  
활동과 관련된 일정도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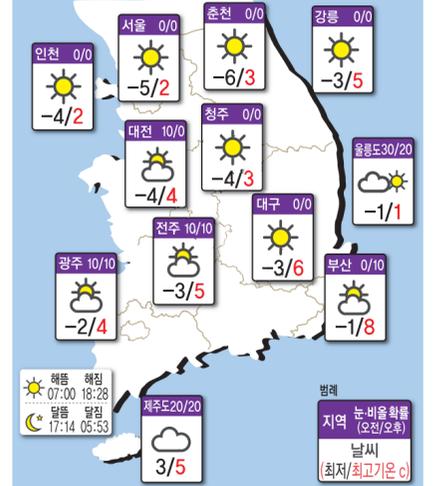
엑소는 작년 중국계 멤버 크리스와 두  
한이 이탈하면서 10인조로 축소됐다. 그  
러나 엑소 컴백은 국내는 물론 해외의  
관심도 뜨거운 전 세계 케이팝 시장에  
다시 한 번 '엑소 열풍'을 몰고 올 것이지  
주목된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트위터@ziodadi



### 오늘의 날씨

3월 4일 수요일 (음력 1월 14일)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발행인 송대근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2 (우)110-715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계천로 1  
인쇄인 최병호 스포츠1부 02 2020 1044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호  
편집인 이성준 스포츠2부 02 2020 1041 2008년 3월 24일 창간  
편집국장 양성동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74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합니다.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구독료: 월별 12,000원, 1부 700원  
광고국장 이윤숙 사인부 02 2020 1068